



골반출혈증후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산부인과 이성훈 과장

# 출산 후 통증 계속된다면... 단순 후유증 아닐 수도

**#** 30대 중반의 회사원 정씨. 정씨는 2년 전 첫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를 얻은 기쁨도 잠시. 도움을 청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던 정씨는 산후조리원을 나오자마자 실 틈 없이 혼자서 육아와 가사를 떠맡아야 했다.

이후 정씨는 골반이 뭉친 느낌과 함께 수시로 아랫배가 아프고 허리가 굽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쉬면 나아지는 경향이 있어 일시적인 허리 통증이나 가벼운 출산 후유증 정도로만 여겨 따로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골반 통증은 점차 심해지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제야 병원을 찾은 정씨에게 내려진 진단명은 '골반출혈증후군'이었다.

## 골반에 혈액 멎쳐 발생...만성통증 환자 10명 중 3명 해당

## 3개월 약물 치료 효과 없을 땐 확장된 정맥 막는 시술도

골반 내 정맥판막 이상으로 생기는 골반 출혈증후군은 우리나라 만성골반통증 환자의 10명 중 3~4명이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질환에 속한다.

실제로 정씨의 사례처럼 통증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참거나, 여성의 경우 산후조리를 잘못해 생기는 일상적인 통증 정도로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질환 자체가 덜 알려져 있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해 정맥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성훈 과장은 "골반출혈증후군 환자의 상당수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바쁜 일상에 쫓겨 질환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다"며 "이때도 문진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가급적 관련 분야 임상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산의 대표적인 후유증=골반출혈증후군은 30~40대 여성이 겪는 만성 골반통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은 정맥판막의 이상. 정맥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막아 정맥 내 혈류가 심장 방

향으로 제대로 흐르도록 돕는 기관이다. 하지만 출산 등으로 손상되면 허리를 구부릴 때 혈액이 역류해 정맥이 부풀어오르고, 자궁과 난소 주변에 혈액이 고이는 '울혈'이 생기는 데 이것이 바로 골반출혈증후군이다.

쉽게 말하자면, 골반 내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 흐르지 못한 채 골반 내에 멎쳐 있는 상태다. 다리에 나타나는 정맥류가 하지정맥류라면, 골반에 나타나는 정맥류는 골반출혈증후군인 것이다. 골반출혈증후군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골반에 느껴지는 묵직하고 빠른 통증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배, 엉덩이 부위에서도 통증이 갑자기 오기도 한다. 아랫배가 더부룩하거나 불편한 소화기 증상, 우울증 및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골반출혈증후군은 오래 서 있거나 나쁜 자세에 쫓겨 질환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다"며 "이때도 문진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가급적 관련 분야 임상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산의 대표적인 후유증=골반출혈증후군은 30~40대 여성이 겪는 만성 골반통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은 정맥판막의 이상. 정맥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막아 정맥 내 혈류가 심장 방

후군 색전술 고려=골반출혈증후군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시술, 또는 수술적 방법으로 시행한다. 물론 이에 앞서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골반출혈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통해 진단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정맥 조영술, CT, MRI 등으로도 골반 내의 정맥 확장을 정확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골반출혈증후군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골반출혈증후군 색전술이 있다. 2mm 가량의 얇은 카테터를 혈관 안으로 넣어 역류된 곳을 경화제와 백금코일로 막는 것. 문제가 되는 혈관을 막아주면 피가 모여 늘어난 정맥이 다시 가늘어지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최근에는 영상의학 분야가 강화된 인터벤션센터와의 협진으로 시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추세다. 한 시간 이내의 짧은 시술시간과 국소마취 덕분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성훈 과장은 "시술 및 수술적 치료는 보통 3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고려한다"며, "과거에는 주로 난소 정맥 결찰술이나 전자공 저출혈을 시행했는데, 최근에는 하지정맥을 통해 골반 내 확장된 정맥을 막는 골반출혈증후군 색전술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물 치료 효과 없을 땐 골반출혈증

# 맥박 90회 넘으면 당뇨병 걸릴 확률 3배↑

## “주기적 검사로 질병 예방을”

## ■분당 맥박수 90회 이상인 사람의 질병 위험도

평상시 맥박수가 분당 90회를 넘는 사람은 60회 미만인 사람보다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 위험이 3배 이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뇨병		대사증후군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85배	3.34배	3.55배	2.15배

연세대 김현창(예방의학교실)·전용관(스포츠저작학부) 교수팀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8640명을 대상으로 맥박수와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연구결과를 보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맥박수가 분당 90회 이상인 사람의 당뇨병 위험도는 60회 미만인 사람보다 남성이 3.85배, 여성이 3.34배 높았다. 같은 조건에서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남성이 3.55배, 여성이 2.15배에 달했다. 대사증후군은 ▲ 두꺼운 허리둘레(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 고혈압(수축기 130mmHg 또는 이완기 85mmHg 이상) ▲ 고중성지방(150mg/dl 이상) ▲ 고밀도콜레스테롤(HDL) 수치(40mg/dl 이상) ▲ 공복혈당상승(100mg/dl) 중 3개 이상이면 해당된다.

비만도(체질량지수.BMI)와 안정시 맥박수를 연관지어 함께 봤을 때는 이런 위험도 차이가 더 명확했다. 체질량지수가 23 이상으로 과체중 또는 비만인면서 안정시 맥박수가 분당 80회 이상인 그룹은 체질량지수가 정상(23 미만)인면서

안정시 맥박수가 분당 80회 미만인 그룹보다 당뇨병(남성 2.51배 여성 4.89배)과 고혈압(남성 3.88배 여성 2.61배) 모두 위험도가 크게 높았다.

특히 이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남자에게서 9.67배, 여자에게서 13.09배나 치솟았다.

보통 맥박이 100회를 넘으면 '빈맥', 60회 미만이면 '서맥',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아주 빠르게 뛰면 '심방세동'으로 구분한다. 맥박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모두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운동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맥박이 100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맥박수가 100회 이상을 넘거나, 60회 미만이라면 '부정맥'을 의심해봐야 한다.

연구팀은 안정시 맥박수를 이용하면 복잡한 설문조사나 고가의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개인의 운동량과 운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성질환의 위험도를 알 수 있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추위에 짜증 심해졌다면? 저체온증 의심

## 심박동 불안정으로 무기력해져

매서운 강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같은 날씨에 몸을 떨면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짜증도 심하다면 저체온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저체온증은 보건당국이 감시하는 한랭질환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추위로 말미암은 주요 질병이다. 심해지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 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저체온증으로 인한 연간 진료인원은 2010년 754명에서 2014년 1150명으로 52.5%나 늘었다.

저체온증 환자는 남성이 66%로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0~9세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 노년층이 17.6%를 차지했다. 야외 활동이 활발한 편인 50대는 13.5%를 차지해 60대(7.7%)보다 오히려 많았다.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신체 내부의 온도)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발생한다. 이 경우 추위를 느끼는 것 외에도 심박동 변화와 짜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 맥박수가 분당 90회를 넘는 사람은 60회 미만인 사람보다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 위험이 3배 이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세대 김현창(예방의학교실)·전용관(스포츠저작학부) 교수팀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8640명을 대상으로 맥박수와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연구결과를 보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맥박수가 분당 90회 이상인 사람의 당뇨병 위험도는 60회 미만인 사람보다 남성이 3.85배, 여성이 3.34배 높았다. 같은 조건에서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남성이 3.55배, 여성이 2.15배에 달했다. 대사증후군은 ▲ 두꺼운 허리둘레(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 고혈압(수축기 130mmHg 또는 이완기 85mmHg 이상) ▲ 고중성지방(150mg/dl 이상) ▲ 고밀도콜레스테롤(HDL) 수치(40mg/dl 이상) ▲ 공복혈당상승(100mg/dl) 중 3개 이상이면 해당된다.

비만도(체질량지수.BMI)와 안정시 맥박수를 연관지어 함께 봤을 때는 이런 위험도 차이가 더 명확했다. 체질량지수가 23 이상으로 과체중 또는 비만인면서 안정시 맥박수가 분당 80회 이상인 그룹은 체질량지수가 정상(23 미만)인면서

# 화순전남대병원 '간암 면역세포 활용' 항암제 내달부터 임상연구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해 연구진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화순전남대병원이 간암의 치료를 위한 면역항암제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김형준)과 화순의 바이오벤처사인 (주)박셀바이오는 자연살해세포(Vax-NK/HCC)를 이용한

임상1상 연구에 대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약칭 NK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파괴해 암을 막아주는 면역

세포로서, 이를 활용한 차세대 중앙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에는 화순전남대병원 교양석(간담췌외과), 조성범(소화기내과), 배우균(중앙내과), 강양준(영상의학과) 교수와

(주)박셀바이오 대표를 겸하고 있는 이재중(혈액내과)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임상승인으로 '간담췌 내 항암제 주입요법을 시행받은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Vax-NK/HCC의 안전성을 연구하게 된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임상연구에 대한 결과가 매우 주목된다.

이 치료제는 체내 면역세포 중 하나인 NK세포를 활용, 앞서 진행된 동물실험에서 별다른 부작용 없이 항암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NK세포는 체내에 있으면 활성도가 낮아 종양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떨어진다. 연구진은 이 점을 착안해 NK세포를 환자 몸밖에서 체외증식시킨 뒤 강력해진 면역세포를 다시 간 종양에 주입, 종양을 사멸시키는 면역항암제 개발에 나섰다. 우군에 해당하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적군인 종양을 퇴치하는 방식이다.

한편, 간암은 국내에서 폐암에 이어 사망률이 두번째로 높은 질환으로서 5년내 재발률이 70%에 달한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버라이어티

# 잘살아보세

통일준비 생활백서

남 南 北 北

최수종 벤지 | 한승미 미서운  
이상민 권오중 | 신은하 김라라

매주 토요일 밤 9시 30분